

합계출산율0.6명 초읽기



▲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9일 '서울경제'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794명으로 1년 전보다 11.5% 쪼그라들었다. 특히 9월 출생아 수는 1만 8,707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였다. 1년 전보다 무려 14.6% 줄어 감소율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합계출산율도 최저치 행진을 이어갔다.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지난해 4분기(0.70명), 올 2분기(0.70명)와 같다.

올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서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보다 낮다. 일각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출산율을 가늠할 수 있는 혼인 상황도 밝지 않다. 혼인 건수는 올 9월 기준 1만 2,941건으로 1년 전보다 12.3% 줄었다. 3분기 혼인 건수도 4만 1,706건으로 8.2%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뤄진 혼인은 올 상반기에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건수 감소는) 비혼 문화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30년 뒤엔 청년 인구 '반토막'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청년이 늘면서 한국의 청년 미혼 인구 비중이 80%를 돌파했다. 가정을 꾸리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늘면서 30년 뒤엔 청년 인구가 반 토막 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결혼하지 않은 만 19~34세 청년은 783만 7,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81.5%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이 나이대 청년 10명 중 5명(54.5%)만이 미혼이었는데 20년 새 이 비중이 27.0% 포인트나 된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청년세대 가운데



▲ 서울 명동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부가구 비중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청년세대 37.1%가 부부가구였다. 이 비중은 꾸준히 줄어 2020년(15.5%)에는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는 대신 '나 홀로 가구'로 독립하거나 '캥거루족'이 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2020년 청년 5명 중 1명(20.1%)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20년 전에는 불과 6.6%만이 1인 가구였는데 그 비중이 급격히 늘며 처음 20%를 넘겼다.

전체 청년 인구는 2020년 1,021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5,013만 3,000명)의 20.4%를 차지했다. 청년 인구 비중은 1990년(31.9%)을 정점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 청년 인구는 521만 3,000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된다.

읍면동 2,977곳 경찰 1명도 없다

한국에서 경찰이 연내 조직 개편과 함께 치안센터 576곳을 문 닫기로 하면서 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 같은 경찰관서가 단 한 곳도 없는 동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5,063곳에서 경찰관서가 한 곳도 없는 곳은 현재 2,625곳인데 치안센터 폐지 이후에는 2,977곳으로 352곳이 증가한다.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의 비율도 51.8%에서 58.8%로 높아진다. 치안을 담당할 관서가 없는 동네가 전국적으로 10곳 중 6곳에 이른다는 얘기도.

특히 경찰관서 폐지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충남 예산



▲ 인천 계양구 임학치안센터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 사진=kyeonggi.com

군은 현재 읍면동 12곳에 치안센터가 있는데 절반 넘게 폐지돼 5곳만 남는다.

'정부의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경찰이 10분 이내에 출동하지 못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중은 충남 33.3%, 충북 25.8%, 강원 26.5%에 달한다. 서울은 이 비중이 1%에 그친다. 읍면동 간 거리가 먼 농촌 지역은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전문가는 "지역사회에서는 치안센터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집중 순찰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나 구체적 보완책 없이 인력을 뺀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